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의 의미 비교 연구

주 향 아*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서로 다른 범주에서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접속어미 ‘-고’는 단어, 구나 절을, 접속부사 ‘그리고’는 단어부터 구, 절, 문장, 문단을 이어주는데, 둘은 비슷한 의미를 실현하며 두 가지 이상의 사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진다. 하지만 각각의 범주가 다른 만큼 필연적으로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고는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여 화자가 접속부사와 접속어미 중 특정한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와 ‘-고’가 실현하는 세부적인 의미와 특성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기존에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는 의미적 특징이나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특히 접속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접속어미와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접속부사 ‘그리고’는 통사적으로 ‘그리~~고~~+고’가 축약되어 현재의 ‘그리고’가 되었는데, 형태상 접속어미 ‘-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고’와 의미적 연관성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태의 기원이 관련 있다고 하여, 또 동일하게 접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둘의 의미 기능이 같을 것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접속사 부류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접속부사와 접속어미들이 형태와 의미상 연관을 가지고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그리고’와 ‘-고’의 비교는 접속부사, 접속어미를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문법 단위를 한 데 묶어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그리고’의 의미에 대해 살피고, 3장에서는 ‘-고’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그리고’와 ‘-고’를 비교하여 정리하고 5장에서는 남은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본고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그리고’와 ‘-고’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새연세말뭉치’(문어)를 활용하였다.¹⁾

2. ‘그리고’의 의미

접속부사 ‘그리고’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접속어미의 논의에 비하면 그 수가 현저히 적는데, 이것은 ‘그리고’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고’와 유사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가 문장 이상의 텍스트 단위를 이어주는 기능을 가졌으므로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의 ‘그리고’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인일 것이다 (차윤정 2002:50).²⁾

1) 이 연구에 활용한 말뭉치는 연세대학교 서상규 교수가 배포한 “연세 구어 말뭉치(20151210버전)”(100만 마디의 균형 말뭉치)/“연세 문어 균형 말뭉치(20151210버전)”(100만 마디의 균형 말뭉치)이며, 용례의 검색은 미국 웨슬리대학의 장석배 교수가 제공한 주석 말뭉치 용례 검색 프로그램 “SB_Yconc3”을 사용하였다. 본고에 제시된 예문은 문어 균형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임을 밝힌다.

2) 비단 ‘그리고’뿐 아니라 많은 접속부사들이 형태상 접속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접속어미와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의 의미 분석을 시도한 논의는 김미선(1998)과 차운정(2002), 장기열(2003)이 있다. 김미선(1998)은 ‘그리고’의 의미가 접속어미의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의미를 기본 의미와 문맥 의미로 나누어 제시했다. 기본 의미는 ‘나열’, ‘계기’, ‘동시’가,³⁾ 문맥 의미는 ‘대립’, ‘양보’, ‘전환’이⁴⁾ 있는데 문맥 의미는 ‘그리고’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문맥의 의미관계에 따라 파악된 것을 말한다(김미선 1998:44). 차운정(2002)은 ‘그리고’가 단락이나 월 같은 텍스트 단위들뿐 아니라 마디, 낱말 같은 통사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들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월을 이어주는 기능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였다. ‘그리고’의 의미로는 ‘공간 나열’, ‘계기 나열’을 제시하였고, ‘계기 나열’의 경우 대립 관계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문장들의 나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⁵⁾ 장기열(2003)은 국어 접속부사를 아울러 살펴보며 ‘그리고’의 의미를 ‘나열’, ‘계기’, ‘대립’, ‘동시진행’, ‘선택’으로 설정했다.⁶⁾

-
- 의미가 분화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접속부사와 접속어미가 형태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여 접속부사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 3) 김미선(1998:42)에서 ‘나열’은 대등접속관계로, ‘계기’, ‘동시’는 종속접속관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 4) 김미선(1998)에서의 ‘전환’은 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고’의 담화적 기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능은 구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구어에서는 ‘그리고’가 하나의 화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 화자가 말을 주고받으며 ‘나열’할 때에도 사용된다.
 - 5) 차운정(2002)에서도 김미선(1998)과 마찬가지로 대립 관계의 접속은 ‘그리고’가 가지는 기본 의미가 아니라 ‘공간 나열’에서 확장된 의미로 보았다. ‘인과’ 또한 ‘공간 나열’에서 확장된 의미로 분석했다.
 - 6) 장기열(2003)의 의미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택’의 의미를 설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ㄱ. 철수에게는 양복도 어울린다. 그리고 한복도 어울린다.
→ 철수는 양복이거나 한복이거나 다 어울린다.
- ㄴ. 사람은 남자 그리고 여자 중 어느 하나이다.(장기열 2003:182)

기존의 논의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에 ‘나열’과 ‘계기’의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연구자들마다 설정에 차이가 있는 ‘동시’, ‘대립’, ‘인과’ 등의 의미를 ‘그리고’의 기본 의미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 의미들로 ‘그리고’가 가지는 의미 기능이 충분히 설명되는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리고’의 의미를 [나열], [계기], [동시], [인과], [부연]으로 설정하고자 한다.⁷⁾ [나열], [계기], [동시], [인과]의 의미는 접속어미 ‘고’와 연관된 의미이며, 본고는 여기에 말뭉치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부연]의 의미를 추가하고자 한다.

- (1) ㄱ. 오늘의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은 주체성을 잃고 대중 문화의 상업성만을 향해 채찍질을 한다. (단어 접속, 나열)
- ㄴ. 광고는 해프닝적이라는 면에서도 현대의 그리고 미래의 인간들 성격에 부합된다. (구 접속, 나열)
- ㄷ.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승리를 마음껏 즐기고 자축하자. 그리고 내친김에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해 기적을 이뤄보자. (문장 접속, 나열)
- ㄹ. 그녀는 이 편지를 거실의 벽난로 위에 놓고 집을 빠져나갔

그러나 (ㄱ)에서 ‘그리고’가 ‘-거나 -거나’로 대체된다고 하여 ‘그리고’의 기본 의미에 ‘선택’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원래의 문장이 ‘철수는 양복이거나 한복이거나 다 어울린다.’로 대체된다는 것은 부사어 ‘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복과 한복이 ‘철수에게 어울리는’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그리고’는 ‘나열’을 통하여 둘을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또한 (ㄴ)의 예에서도 서술어가 ‘어느 하나이다’인데, ‘선택’의 의미는 서술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 7) ‘그리고’가 드러내는 [나열], [계기]의 의미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그러나 [동시], [인과]의 의미가 기본 의미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 [인과]의 의미를 설정한 이유는 (1ㄱ, ㄷ)의 예문에서 선후행문의 서술어 간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그리고’에 [동시]나 [인과]의 의미를 설정하지 않고는 문맥에 따른 어떠한 의미 관계를 분석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리고’의 기본 의미에 [동시]와 [인과]를 설정하였다.

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는 풀이 돌아나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문장 접속, 계기)

ㄱ. 몇몇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몇몇은 춤을 추었다. (문장 접속, 동시)

ㄴ. 나는 한 달 동안의 단조로운 병원생활에서 삭막한 현대문명의 단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기 시작했다.(문장 접속, 인과)

‘그리고’는 단어부터 구, 절, 문장, 문단까지 다양한 단위들을 접속한다. 그런데 단어나 구 단위의 접속에서는 대등적인 [나열]의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계기], [동시], [인과], [부연]의 의미는 절 이상의 단위를 접속할 때 드러난다.⁸⁾ ‘그리고’는 문장 부사라는 통사범주의 특성 상 하나의 화제에 해당하는 여러 사태를 나열하여 접속하는데, (1ㄷ)에서 보듯이 선후행 문장의 서법은 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나열]의 의미는 ‘그리고’가 문장을 넘어 문단을 이어줄 때에도 드러난다. ‘그리고’는 문단과 문단을 접속함으로써 각 문단의 화제를 연

8) (1ㄴ, ㄱ, ㄴ)의 예문을 절 접속의 예문으로 바꾸어 보아도 의미 변화 없이 적법한 문장이 된다.

(1) ㄴ' 그녀는 이 편지를 거실의 벽난로 위에 놓고 집을 빠져나갔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는 풀이 돌아나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절 접속, 계기)

ㄱ' 몇몇은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몇몇은 춤을 추었다. (절 접속, 동시)

ㄴ' 나는 한 달 동안의 단조로운 병원생활에서 삭막한 현대문명의 단면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기 시작했다. (절 접속, 인과)

9) 이밖에도 말뭉치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들이 발견된다.

ㄱ. 미야, 어서 오너라. 그리고 너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이 대지를 적시거라.

ㄴ. 왜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차라리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고통을 받는 살아있는 송장 노릇을 해야 하는가.

이처럼 ‘그리고’가 단순 [나열]의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 ‘그리고’의 선후행 문장이 동일한 서법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2) ㄱ. 그때 내 방 건너편에 할아버지와 어린 계집애가 기거하는, 내 방과 별다를 바 없는 누추함의 세계가 있었다. 그 계집애는 늘 신경질을 부렸고 할아버지에게 말대꾸하는 싹수가 노란 애였다. 결국 그 방의 문짝이 부서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할아버지의 탄식은 내 귀에 미쳤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불탄 절에서 나온 거라면서 시커먼 문짝을 아귀지어 억지로 맞추었다.

그 문짝이 솥을꽃살문이라는 것은 몇 년이 훨씬 지나고야 알았다. 솥을꽃살문은 전체가 하나의 조각이다. 그것은 궁궐의 정전이나 대웅전의 법당에나 쓰이는 귀한 것이다.

대문 바로 옆의 화장실을 다니러 가다가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솥을꽃살문 무늬는 내 걸음을 오래 멈추게 했다. 아마 내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할아버지와 그 계집애의 애육살이와 신문지와 백열등을 배경으로 한 그 솥을꽃살문 무늬의 평화로움의 비교로 인한 충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솥을꽃살문 무늬를 잊었다. 아니 그게 꼭 솥을꽃살문 무늬인지조차 확신이 없다. 내 기억은 따뜻한 꽃에 있다. 그리고 다시 단칸방으로 돌아오고 내 방은 없어졌다. 누군가 세계를 향하는 문을 모두 잠가버렸다. ...

- ㄴ. 지난 해 7차례의 체급별 대회에서 무려 4차례나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등 프로 경력 2년 동안 통산 6차례나 정상을 차지했건만 도무지 실속이 없다는 느낌이 ○○○의 겨울을 우울하게 만든다. 프로의 능력을 재는 바로미터라는 연봉때문이다.

○○○은 지난해 12월부터 청구 씨름단 측과 4차례에 걸쳐 연봉 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의 94년 연봉은 3천1백만원. 1차 협상 때 단 측이 제시한 연봉액은 3천6백만원. 그는 5백만원을 올려주겠다는 데서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

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달여 동안 세 차례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최근 단 측에서 나온 새 조정액은 4천만원. ○○○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2개월여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나가 '씨름' 한 결과가 자존심을 세워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2)의 예문을 보면 ‘그리고’가 문단과 문단을 접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나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간 연결에서의 [나열]은 절이나 문장 접속의 [나열]과는 그 층위가 다르다. 절이나 문장 접속의 [나열]이 사태 간 나열이라고 한다면 문단 접속의 [나열]은 결속 단위가 텍스트로 확장됨으로써 화용적 층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 문장 접속의 [나열]과 문단 접속의 [나열]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가 절 접속에 사용될 경우에는 접속어미와 공기하여 나타나게 된다.

- (3) ㄱ. 학교에서 어쩌다 우리 말이 튀어나오면, 그리고 담임 선생이 그 사실을 알면 그 학생은 교무실로 끌려가 벌을 서야 했습니다. (절 접속, 계기)
- ㄴ. 그분만큼은 나오는 음식의 이름은 물론, ‘클로부조’의 연도까지 맞히며 이모의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지요. (절 접속, 나열)
- ㄷ. 인간의 먼 조상들이 동굴 옆에 모여 밤의 공포와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냥해 온 멧돼지를 구워 먹기 위해서 생나무를 태우던 그 불빛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절 접속, 나열)

예문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는 ‘-면, -니지, -아서’ 등 다양한 접속어미의 뒤에 나타나 절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접속부사의 선후행절은 동일한 접속어미를 취함으로써 절이 형식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접속부사에 의한 문장 접속에서 선후행 문장의 서법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가 절 접속의 기능을 수행할 때 ‘-고’와 공기하면 단순 [나열] 이외에 [동시]나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¹⁰⁾ 그러나 다른 접속어미와 공기할 경우에는 단순 [나열]의 기능만을 가진다.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리고’의 의미는 [부연]이다. [부연]이란 선행하는 절 혹은 문장의 의미를 후행하는 절이나 문장이 덧붙여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¹¹⁾

- (4)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문장 접속, 부연)

10) 이것은 ‘-고’와 ‘그리고’가 모두 [동시], [계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고’가 다른 접속어미와 공기하게 되면 해당 접속어미가 가지는 의미로 인하여 ‘그리고’ 자체는 [나열]의 의미만 실현할 수 있다.

11) [부연]의 의미는 접속부사가 담화표지로 기능할 때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가 있다(차운정 2000, 심란희 2019 등). 차운정(2000:5-6)은 ‘그러니까, 그런데’ 등이 부연적 전개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표지는 후행하는 텍스트에서 선행하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연적 전개 표지의 사용은 필수적이지 아니며, 이를 사용할 때는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자신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협력의 원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심란희(2019)는 ‘그러니까, 이제’를 화제를 미시적으로 결속하며 부연 설명의 기능을 가지는 담화표지로 분류했다.

앞의 연구들 모두 [부연]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부사 목록에 ‘그리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아마도 (3)과 같은 예들을 ‘그리고’가 가지고 있는 주된 의미 중 하나인 [나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른 접속부사들에 [부연]의 의미 표지를 부여한다면, ‘그리고’에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흔히 전형적인 [나열]이라고 생각하는 범주와는 [부연]이 차이를 보이는 바, 본고는 [부연]의 의미를 설정하였다.

-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다. 부연하자면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한다. 그리고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문장 접속, 부연)
-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한다. 부연하자면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문장 접속, 부연)
-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장 접속, 부연)
-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다. 부연하자면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장 접속, 부연)

(4)의 예문들은 기존에 ‘그리고’의 의미로 제시되었던 [계기], [동시], [인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계기]나 [동시]의 의미를 드러내려면 선후행항의 사건시가 시간적인 연관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을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인과]의 범주에 넣기에도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나열]인데, 이 예문들은 선후행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에 의한 [나열]은 흔히 하나의 화제에 해당하는 여러 사태의 나열을 말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후행항의 서법이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거나 담고 있는 정보량이 비슷하다. 그러

나 (4)의 예들은 모두 후행하는 문장이 선행하는 문장을 이어 받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후행하는 문장에 선행하는 문장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는 대용어나 선행 문장의 내용과 관련된 단어가 후행문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4ㄱ)의 ‘그것’은 선행하는 문장 전부를, (4ㄴ)의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는 선행 문장의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라는 서술을 받아 이어나가고 있다. (4ㄴ)에서는 명확한 대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후행 문장의 ‘전화’가 선행 문장에 언급된 ‘전파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기로 제시되었다. 본고는 이들을 [부연]이라는 의미 범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이 [부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고’를 직접적으로 ‘부연하자면’으로 대체해 보았을 때 문장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부연]의 의미는 절 접속의 경우에도 드러날 수 있다.

- (4')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 ㄴ".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부연하자면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그리고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

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부연하자면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그리고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부연하자면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4')의 예들은 (4)를 문장 접속이 아니라 절 접속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그리고’가 사용되었을 때와 ‘그리고’를 생략하고 ‘-고’ 접속문으로 바꾸었을 때의 예들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고’에도 새롭게 [부연]의 의미를 설정할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3. ‘-고’의 의미

접속어미 ‘-고’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전통문법 시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현배(1937/1937:306-313)에서는 ‘-고’를 벌림꼴의 하나

로 차례 벌림꼴(시간적 나열)과 열안 벌림꼴(공간적 나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차례 벌림꼴은 한 임자 또는 두 임자가 두 가지 넘어의 움직임을 차례차례 하여 감을 보이는 꼴로 완료와 방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열안 벌림꼴은 두 가지나 두 가지 더 되는 움직임이 각각 짝 임자 또는 한 임자로 말미암아 들어남을 공간적으로 별리는 꼴로 시간이 관여되지 않은 순수한 벌림을 말한다. 이후의 연구들에서 ‘나열’의 의미를 세밀하게 나누어 공간 나열, 동시 나열, 상태지속 나열, 계기 나열로 분석하거나(남기심 1994),¹²⁾ 이에 더하여 화제적 나열의 의미를 추가하기도 하였다(박종갑 1998, 박종갑 2000 등). 또 ‘-고’의 의미에 수단/방법, 이유/근거 등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다(유현경 2008 등). 초기에는 ‘나열’의 의미 분석에 집중되었던 ‘-고’의 의미 설정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나열],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듯하다.¹³⁾

이 장에서는 ‘-고’의 의미를 [나열],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 [부연]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고’는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데, [나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대등접속의 기능을,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종속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연]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12) 남기심(1994)의 의미 분류는 ‘나열’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 나열’은 대등접속으로, ‘동시 나열, 상태지속 나열, 계기 나열’은 종속접속으로 분석한다.

13) 임동훈(2009:113)에서는 ‘-고’의 다양한 의미가 화용론적 추론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고’의 의미의 일부는 추론 의미에서 어휘적 의미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 (5) ㄱ. 그 시선으로 보이는 넓고 푸르고 아름다운 청평호.(단어 접속, 나열)
 ㄱ'. 그 시선으로 보이는 푸르고 넓고 아름다운 청평호.(단어 접속, 나열)
 ㄴ. 어떤 선은 가늘고 어떤 선은 조금 두껍다.(절 접속, 나열)
 ㄴ'. 어떤 선은 조금 두껍고 어떤 선은 가늘다.(절 접속, 나열)
 ㄷ. 그는 변화가에서 멀리 벗어나 웬 누추하고 조잡한 골목길을 지나는 중이었다.(구 접속, 나열)
 ㄷ'. 그는 변화가에서 멀리 벗어나 웬 조잡하고 누추한 골목길을 지나는 중이었다.(구 접속, 나열)

접속어미 ‘-고’는 선후행절의 사태를 평면적으로 나열한다. 윤평현(1994)는 ‘-고’가 선행명제와 후행명제를 무색투명하게 나열하여 두 명제를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배열한다고 보았다. 특히 ‘-고’의 선후행절 서술어가 [+상태성]의 성격을 가지거나, 서술격조사의 활용형인 경우 단순 나열의 해석이 두드러진다.

[나열]의 의미는 ‘-고’에 의해 접속되는 단위가 구이거나 절일 때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5ㄱ', ㄴ', ㄷ')에서 보듯이 ‘-고’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선후행항의 자리가 바뀌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후행항의 통사적 지위가 대등하기 때문이다.

‘-고’는 대등접속뿐 아니라 종속접속의 기능도 수행하며, 종속접속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더욱 다양하게 드러난다.

- (6) ㄱ. 미술실 문을 닫고 우리는 천천히 어두워 오는 교정을 걸어 나왔다.(계기)
 ㄴ. 자기 의자에 주저앉은 배조교가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동시)
 ㄷ. 처음 만난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형제처럼 함께 울었다.
 (동작지속)

- ㄹ. 우려와는 달리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S선배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수단/방법)
- ㅁ. 범인은 이곳이 범행을 하기에 위험한 곳이라는 걸 깨닫고
곧 사라질 것이다.(이유/근거)

(6)의 예문에서 보듯이 ‘-고’는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의미를 드러내며 선행행항을 종속적으로 이어준다.¹⁴⁾ [계기]는 접속된 선행행항이 시간 상 선후 관계를 가지며, [동시]는 접속된 선행행항이 시간 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¹⁵⁾ [동작지속]은 선행행항에서 이미 일어난 사태가 후행항의 사건시까지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수단/방법]은 선행행항의 사태가 후행항의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경우이다. [동작지속]과 [수단/방법]의 의미는 동사나 동사구 간의 접속에서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고’가 [부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예문 (4')를 다시 보이도록 하겠다.

- (4')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그것은 상당히 정확

14) (6)의 예문들은 ‘-고’에 의해 접속되는 선행행항에 시간 관계를 암시하는 특정한 단어가 있거나 수단/방법 혹은 이유/근거를 나타내는 별도의 어휘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행항 사이의 관계가 [계기], [동시],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고’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15) 윤평현(1994:11)에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가 동일 주어에 취해야 하는 동일 주어 제약을 갖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남편은 아이들이 먹을 밥을 준비했다’와 같이 동일 주어가 아니더라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ㄱ". 버지니아의 원고는 출판되기 전에 완전한가의 여부에 대한 레오나드의 검토가 반드시 따랐고, 부연하자면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절 접속, 부연)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그리고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ㄴ". 활자 문화 속에서 자라난 구세기적인 인간은 고립적인 개인주의에 그 특징이 있지만 전파 시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높은 참여성이 있다고 맥루한은 주장하고, 부연하자면 전화야말로 현대인에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한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그리고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ㄷ". 투수란 감정이 섬세한 포지션이고, 부연하자면 이 섬세한 감정의 변화가 곧 투구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 접속, 부연)

(4'ㄱ', ㄴ', ㄷ')는 ‘-고’에 의한 절 접속이다. 본고는 이를 [나열]과는

구분되는 [부연]이라는 의미로 구분하였다. 앞서 ‘그리고’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았지만, 위의 예들은 [나열],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넓게 보아 위의 문장들이 [나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에 의한 [나열]은 대등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4' ㄱ', ㄴ', ㄷ')은 선행행절의 관계가 대등적이지 않으며, 서로 대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4' ㄱ", ㄴ", ㄷ")와 같이 후행행절의 첫머리에 ‘부연하자면’을 첨가하여도 문장이 성립한다. 따라서 본고는 ‘그리고’와 마찬가지로 ‘-고’에도 [부연]의 의미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부연]의 의미는 종속접속의 한 부류인가?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의 의미 기능에서는 후행절이 주가 되며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어떠한 의미 관계를 보이느냐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부연]은 이들과 달리 선행절이 주가 되고, 후행절이 선행절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종속접속과는 의미 구조가 다르므로 종속접속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은경(2000:138)에서는 대등과 종속이 명확하게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유현경(2002:340)에서도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이 구조적인 차이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부연]의 의미는 종속접속에 가깝지만 선행절이 주가 되고 후행절이 부가 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6) 김영희(1988)에서는 대등접속문이 가지는 고유한 통사적 특징으로 선·후행절 자리 바꾸기, 접속사 되풀이, 내포 접속문 구성이 가능하며, 선행절 옮기기, 재귀 대명사화, 후행절 주제를 주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다. 본고의 예문들이 말뭉치에서 가져온 예문들이므로 선행행절의 주어나 목적어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기제들을 모두 검토해 보기는 어려우나, 김영희(1988:98-99)에서 ‘독립성’으로 보아서는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대칭성’으로 보아서는 차이가 나는 종속접속문과 등위접속문을 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바 [부연]의 예문들은 통사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고’는 ‘~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다단어 표현에 쓰여 관용어구처럼 여러 단어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¹⁷⁾

- (7) ㄱ. 1998년 프랑스영화제는 기록적인 투자와 영화제작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 ㄴ. 이러한 기대와 자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학생활은 처음부터 처절한 절망의 연속이었다.
- ㄷ. 요컨대 변화의 균형성이 학문의 존재 이유를 통해 함께 기획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한국 대학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ㄹ.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1백만 명이 더 넘을 것이라고 하며 월급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축을 더 해야 한다.
- ㄴ. 따라서 언제고 한 표를 던질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지율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 ㄷ. 그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를 향해 꼬박꼬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었고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7)의 예문에서 보듯이 ‘불구하다’와 ‘막론하다’는 항상 ‘~에도 불구하고, ~를 막론하고’의 형태로만 쓰인다. 우형식(1996)에서는 접속 기능의 명사구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¹⁸⁾ ‘~에도 불구하고’나 ‘~를 막론

두 절이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의존적인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 17) 여러 단어가 화석화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것을 관용어, 표현 문형, 우연적 구성 등 다양하게 지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여러 단어가 하나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임에 중점을 두어 ‘다단어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18) 우형식(1996)에서는 X Adn N (P) Y(Adn N (P))는 ‘관형형 어미-명사-조사’ 순의 통사적 복합체) 혹은 X N (P) Y의 구조를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구의 특징적인 구조로 보고, ‘~을 적에, ~는 고로’ 등의 선후행 요소의 통사 관계, 의미 관계를 밝힌 바 있다.

하고’도 이와 비슷한 측면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구하다’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형태로 쓰이면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 접속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런데, 그러니까’처럼 ‘대용어+접속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럼에도’가 선행 문장을 대용하는 역할을 하고, ‘불구하고’가 ‘엮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의미를 드러내 접속부사와 유사한 쓰임을 보인다. ‘불구하고’나 ‘막론하고’의 ‘-고’는 (5)와 (6)에서의 ‘-고’와 달리 독립적으로 [나열], [계기], [동시] 등의 의미를 변별할 수 없으므로 무표적으로 동사의 의미에 기대어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단어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리고’와 ‘-고’의 비교

4.1. 접속 단위의 비교

2장과 3장을 통하여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의 의미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았다. ‘-고’와 ‘그리고’는 접속하는 단위가 서로 다른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고’와 ‘그리고’의 접속 단위

형태 \ 접속 단위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고	O	O	O	X	X
그리고	O	O	O	O	O

‘-고’는 단어, 구, 절을,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에서 문단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4.2. 의미 기능의 비교

‘-고’는 [나열], [계기], [동시], [동작지속], [수단/방법], [이유/근거], [부연]의 의미를, ‘그리고’는 [나열], [계기], [동시], [인과], [부연]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와 ‘그리고’는 접속 단위에 따라 각기 드러내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고’가 나타내는 의미 중 [동작지속], [수단/방법]의 의미는 동사구 층위의 접속에서만 드러난다. ‘그리고’가 접속하는 단위가 단어나 구, 문단일 경우에는 [나열]의 의미만 드러난다.¹⁹⁾

<표 2> 접속 단위에 따른 ‘-고’의 의미 실현 양상

‘-고’의 의미 \ 접속 단위	단어	구	절
[나열]	O	O	O
[계기]	O	O	O
[동시]	O	O	O
[동작지속]	X	O	X
[수단/방법]	X	O	X
[이유/근거]	O	O	O
[부연]	X	X	O

<표 3> 접속 단위에 따른 ‘그리고’의 의미 실현 양상

‘그리고’의 의미 \ 접속 단위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나열]	O	O	O	O	O
[계기]	X	X	O	O	X
[동시]	X	X	O	O	X
[인과]	X	X	O	O	X
[부연]	X	X	O	O	X

19) ‘그리고’가 문단 간의 연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담화표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나열]은 화제 간 나열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의 담화표지적 쓰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나열]의 의미는 ‘-고’와 ‘그리고’에 동일하게 단어와 구, 절 층위에서 실현되는데, 특히 단어의 나열에 있어서 나열되는 항들이 3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마지막 항의 앞에 ‘그리고’가 쓰이는 경향이 있으며, ‘-고’는 접속어미라는 특성 상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만을 나열할 수 있으나, ‘그리고’는 품사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나열할 수 있어 사용되는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의 <표2>와 <표3>을 보면 ‘-고’는 [동작지속], [수단/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리고’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동작지속]이나 [수단/방법]의 전형적인 예들로 제시되는 문장들은 아래와 같다.

- (8) ㄱ. 아영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 (동작지속)
 ㄴ. 그녀는 치마를 입고 모임에 나갔다. (동작지속)
 ㄷ. 지우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 (수단/방법)
 ㄹ. 그 사람이 차를 몰고 대구에 갔다. (수단/방법)

(8)의 예들을 ‘그리고’에 의한 문장 접속으로 바꾼 예들이 (8')이다.

- (8') ㄱ'. 아영이가 가방을 멘다. 그리고 학교에 간다.
 ㄴ'. 그녀는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갔다.
 ㄷ'. 지우가 버스를 탔다. 그리고 출근을 했다.
 ㄹ'. 그 사람이 차를 몰았다. 그리고 대구에 갔다.

(8')의 예들은 ‘그리고’에 의해 (8)의 선행절에 서법과 종결어미가 결합됨으로써 [동작지속]이나 [수단/방법]보다는 [계기]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선행 문장이 이미 하나의 사태를 완결시킴으로써 후행 문장에 의미가 종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선후행 문장이 각각 의미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사건으

로 인식됨으로써 두 사태의 나열이 도상적으로 [계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²⁰⁾ 이를 통하여 ‘-고’의 의미 중 동사구 층위의 접속에서만 실현되는 의미는 ‘그리고’가 나타내지 못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4.3. ‘그리고’와 ‘-고’의 변별적 선택 기제

지금까지 ‘그리고’와 ‘-고’의 공통적 의미와 변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변별적 의미는 ‘-고’의 동사구 층위 접속에서 실현되는 [동작지속], [수단/방법]의 의미로 접속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와 ‘-고’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형태가 공유하는 의미인 [나열], [계기], [동시], [이유/근거], [부연]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가 선택되고 ‘-고’가 선택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리고’와 ‘-고’의 변별적 선택 기제를 화자의 선후행 사태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의 차이, 선후행 사태의 의미 관계에 대한 해석 주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고자 한다.²¹⁾

20)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여러 문장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인간의 인지 구조 상 어순을 시간 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가령 ‘철수가 학교에 갔다. 밥을 먹었다.’와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라는 두 가지 예를 비교해 본다면 별도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전자는 철수가 학교에 먼저 갔다가 밥을 먹은 것으로, 후자는 철수가 밥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간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21) 인간의 사고방식은 사용하는 언어에 영향을 준다. 화자가 여러 사태를 연결하여 발화하고자 한다면 접속 기능을 하는 어휘를 활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사태 간 긴밀성, 각 사태의 중요도 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접속을 통해 문장 또는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는 여러 사태의 중요도를 등급화하고 전략적으로 각 사태의 발화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으며, 보다 긴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태는 담화 내에서 서로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발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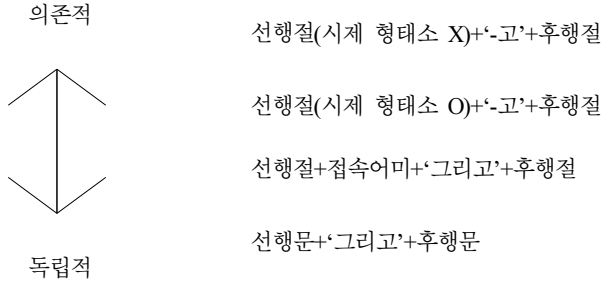
이은경(2017)에서는 어순이 담화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내재적 인과관계 동사’라고 통칭되는 일련의 동사들을 이용하여 실험 자극 문장을 구성하고 한국어와 영어 화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문장에 대해 자유 문장

먼저 화자가 선행행 사태의 의미 구조나 독립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와 ‘그리고’ 중 하나를 변별적으로 선택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사태를 구조화할 수 있다. ‘-고’와 ‘그리고’가 동일한 의미를 드러낼 때, ‘-고’에 의한 절 접속은 선행행절이 결국 하나의 문장을 이룸으로써 각각의 문장을 접속하는 ‘그리고’에 비해 선행행 사태의 독립성이 떨어진다. 각각의 사태가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²²⁾ 또한 통사적으로도 시간이 개입되면 시제 형태소가 후행절에만 나타나고 선행절은 후행절에 의존적으로 해석된다는가, 선행절이 독립적인 상, 서법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행행절이 통사 구조상 의존적이다.

반면 ‘그리고’에 의한 문장 접속은 선행행문이 완결된 형태를 취하므로 선행행 사태가 ‘-고’에 의한 접속에 비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통사적으로도 선행행문 각각이 시제, 상, 서법 형태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선행행 사태를 의존적으로 인식하느냐, 독립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와 ‘그리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고’와 ‘그리고’에 의한 접속 형식에 따른 선행행 사태의 의존성과 독립성을 스펙트럼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것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문장 조건과 상관없이 한국어에서 ‘결과-원인’의 구성이 영어에서보다 절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는 ‘원인-결과’의 구성이 더 자연스러운 구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하는가는 언어 표현에 영향을 주며 ‘-고’와 ‘그리고’의 선택도 화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 22) 하지만 ‘-고’ 접속에서도 어떤 의미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선행행 사태의 연관성이 다르게 인식된다. 유현경(2008)에서는 ‘-고’ 접속문을 대상으로 선언어미 ‘-겠-’의 작용역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고’ 접속문에서 선언어미가 선행절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대등접속(나열)의 경우에만 ‘-겠-’, ‘-었-’, ‘-시-’의 결합이 모두 가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가 [나열]의 의미를 드러낼 때,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것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독립적임을 알려준다.



<그림 1> 선후행 사태의 의존성과 독립성

또한 ‘-고’와 ‘그리고’는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는 접속된 완전체가 문장 안에 귀속되고, 의미의 작용역도 선후행절을 넘지 못하므로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리고’는 문장 이상의 단위도 접속할 수 있어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이 절 접속에 비해 많다.

- (9) ㄱ. [[무거운 약수통을 집에 갖다놓]-고 [뜰의 나무들을 보니]]
 [[역시 봄의 요정들이 물통을 들]-고 [부지런히 수액의 통로를 따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듯하였다.
- ㄴ. [[단양팔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고장은 고구려 때는 적산현 또는 적성현이라 해서 남진기지로 크게 중시되던 곳으로, 1981년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원시 인류의 사람뼈가 발견된 곳도 이곳이며, 수물지역 유적조사 때는 굴 속에서 멸종된 코뿔소와 원숭이 등 구석기시대의 동물 화석과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및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나오기도 했으니, 어쩌면 이 고장은 우리 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고장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하진나루는 신단양이 자리한 상진나루와 함께 남한강에서도 가장 번창한 나루의 하나였으며, 술 파는 색시들이 뻗시글거리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꽃거리나루는 소금장수가 한번 오면

갈 줄을 몰랐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물에 잠겨
이제는 유래를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9)의 예문은 각각 ‘-고’와 ‘그리고’에 의해 둘 이상의 항이 접속된 예이다. (9ㄱ)에서 ‘-고’에 의한 접속을 보면 ‘-고’의 작용역은 ‘-고’를 중심으로 선후행절에 한정하여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고’가 두 번 등장하는데 각각의 ‘-고’는 접속어미를 중심으로 선후행절을 결속하여 하나의 더 큰 항을 형성한다. (9ㄴ)에서 ‘그리고’의 선후행항은 각각 한 문장에 불과하나,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절이 접속어미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각각의 절이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들이 ‘그리고’에 의하여 담화 상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가 접속하는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량은 필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는 접속의 최대 단위가 절이기 때문에 선후행항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또한 ‘-고’와 ‘그리고’의 사용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기능이 바로 화제 간 나열이다. ‘그리고’는 문장을 넘어 문단 이상의 단위까지도 접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화제 간 나열에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화자가 인식하는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이 어떠한가도 ‘-고’와 ‘그리고’의 변별적 선택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후행 사태의 정보량이 비교적 적다면 ‘-고’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정보량이 많다면 ‘그리고’를 사용하여 두 문장 이상으로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숙영(2018)에서는 접속부사가 절차적 의미, 즉 의미 해석의 추론 경로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접속부사가 생략되어도 문장들의 내용 연결이 추론될 수 있으며, 문장 간 의미 연결에는 응집성을 위해 별도의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³⁾ 이를 받아들인다면 접속어미 ‘-고’는 선후행 사태의 의미 관계

를 화자가 보다 긴밀하게 설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반면, 접속부사 ‘그리고’는 선후행 사태의 의미 관계의 해석에 청자의 추론 과정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는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그리고’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속부사에 의한 결속은 그 문맥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청자에게 부여되며, 화자가 접속부사를 명시하는 것은 추론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5. 남은 문제

이상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범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둘의 의미를 살피고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요소가 변별적으로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는 ‘그리고’와 ‘-고’에 한하여 살펴보았으나, 접속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 문법 단위를 한 데 아울러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 접속에 사용되는 ‘와/과’와 ‘그리고’의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어에서는 사용역이 달라지므로 문어와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들은 한국어에 접속사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범주의 요소들을 한 데 묶어 기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 23) 문숙영(2018:5)에 따르면 후행 담화를 해석할 때는 선행 담화의 해석을 포함한 문맥 정보가 활용된다. 문숙영(2018:5)의 예를 아래에 보이겠다.

- ㄱ. 나는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갔다. 커피향이 가득했다.
- ㄴ. 우리는 점심 후 가벼운 조깅을 했다. 강가는 참 한가로웠다.

위의 문장들은 (ㄱ)의 ‘커피향’이 ‘백화점의 커피향’으로, (ㄴ)의 ‘강가’는 ‘우리가 조깅을 한 곳’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며, 접속사가 없는 선후행 문장은 의미관계의 적절한 해석이 전적으로 청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참고문헌

-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49-80.
- 김미선(1998), “접속부사 연구(Ⅲ)-‘그리고’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97,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35-49.
-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 202, 한글학회, 83-118.
- 남기심(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통사적 특징」, 서광 학술 자료사.
- 문숙영(2018),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국어학』 88, 국어학회, 97-136.
- 박종갑(1998),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2)-의미 기능의 유형 설정을 중심으로-”, 『방언학과 국어학』, 서울:태학사.
- 박종갑(2000),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3)-문장의 선형 구조와 관련된 도상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35, 국어학회, 93-111.
- 심란희(2019),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우형식(1996), “접속 기능의 명사구”, 『국어문법의 탐구Ⅲ-국어 통사론의 문제와 전망』, 태학사.
-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 어미”,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333-352.
- 유현경(2008), “‘-고’ 접속문에서 선어말어미 ‘-겠-’의 작용역과 결합 양상- ‘-었-’, ‘-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153-178.
- 윤평현(1994), “국어의 나열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3, 한국언어문학회, 1-25.
- 윤평현(1998), “나열 접속에 대한 고찰”, 『한글』 242, 한글학회, 311-332.
- 이은경(1995),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은경(2017), “언어의 유형적 차이와 담화 구성의 상관관계-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1-207.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75-194.
- 차윤정(2000), “이음말의 담화표지 기능”, 『우리말연구』 10, 우리말글학회, 105-125.
- 차윤정(2002), “‘그리고’의 의미적 특성”, 『우리말연구』 12, 우리말글학회, 49-69.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서울:정음문화사.

주향아(Ju, Hyang-a)

[05210]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406-1404

전자우편: arhapsody@yonsei.ac.kr

원고접수일 : 2019년 3월 30일

원고수정일 : 2019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24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eaning of Conjunctive Adverb ‘Geurigo’ and Conjunctive Ending ‘-ko’

Ju, Hyang-A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atives a conjunctive adverb ‘geurigo’ and a conjunctive ending ‘-ko’. ‘-ko’ compounds words, phrases, and clauses. ‘geurigo’ compounds words, phrases, clauses, sentences and paragraph. ‘geurigo’ and ‘-go’ have mainly same meaning of [enumerate], [chronicle], [coincidence], [reason], [amplification]. [amplification], following clause or sentence explains antecedent clause or sentence additionally, is newly meaning of ‘-ko’ and ‘geurigo’. [means] and [reason] are distinct meaning of ‘-ko’ and reveal only when ‘-ko’ combine verb phrases. When ‘geurigo’ combines Words and Phrases, ‘geurigo’ only signifies the meaning of [enumerate]. In level of pragmatics, they enumerate events belong to same topic. But ‘geurigo’ is only used to various topic arrays in level of pragmatics in contradistinction to ‘-ko’. Speaker selects between ‘-ko’ and ‘geurigo’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attitude of two or more events: events are whether associated or not, what speaker wants to express about events(tense, aspect, mood ect.), how much information is included each events.

Keywords: ‘-go’, ‘geurigo’, conjunction, conjunctive adverb, conjunctive ending, coordination, subordination

핵심어: ‘-고’, ‘그리고’, 접속, 접속부사, 접속어미, 대등접속, 종속접속